

검찰, '도로위 흥기' 음주운전과 전쟁 돌입

광주지검, 사회적 경각심 높이기 위해 무관용 엄단 구속수사 원칙 강력 처벌 방침...올들어 44명 구속

광주지방검찰청이 음주운전과 전쟁에 들어갔다.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내부기준에 따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진 20대 청년 운전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24)씨 등 10명을 직(직) 구속하여 구속하는 등 총 44명을 구속했다. 광주지검이 올해 전체 사건 중 직접 구속한 사례가 33건인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직구속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눈에 띈다. 직구속은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검찰이 직접 구속한 경우다.

검찰이 음주전력 2회 이상과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 재범, 무면허 및 상해사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의 경우 면허 100일 정지와 함께 150~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0.2%는 300만~500만원, 0.2~0.3%는 500만~700만원, 0.3 이상은 700만~

10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검이 이번에 직접 구속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 5월 오전 6시 35분께 광주시 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음에도, 같은 날 오전 7시 17분께 또 다시 5km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동종전과도 2회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8월 31일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94%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2016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총 5회의 동종전과가 있었다.

20대 대학생인 C씨는 지난 3월31일 새벽 2시께 제한속도 60km/h의 굵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146km로 과속운전하다 논두

렁에 빠져 광주 등에 거주하던 동승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수봉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경찰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사례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 만큼은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 검찰 내부 구속기준에 해당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도로 위 흥기인 음주운전 차량이 없어질 때까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선 엄격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광주·전남 각각 2015년 7384건, 1만310건, 2016년 6921건, 1만482건, 2017년 8244건, 7245건 등이며, 이 가운데 면허취소가 50%를 넘는 등 만취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C 6000대 감염시켜 가상화폐 채굴 동원 '크립토재킹' 첫 적발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좀비PC로 활용하는 이른바 '크립토재킹'(cryptojacking) 범죄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의 이메일 아이디 3만2435개 계정을 수집, 악성코드를 탑재한 메일을 보내 PC 6038대를 감염시킨 뒤 가상통화 채굴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력서 보내드립니다' 등 허위 제목과 내용을 쓴 이메일을 보내 상대방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된 문서파일에는 가상통화 채굴 기능이 있는 악성코드가 삽입돼 파일을 열면 PC에 악성코드가 설치됐다.

김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감염시킨 PC의 중앙처리장치(CPU)의 50%를 강제로 구동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전산작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을 통해 채굴한 가상통화도 익명성이 매우 강한 '모네로'를 택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보안업체에서 백신 업데이트로 대응한 탓에 이들이 2개월간 실제로 채굴한 가상통화는 2.23코인(당시 100만원 상당)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메주만들기 신나요" 8일 장성하이텍고 학생들이 강진군 군동면 전통된장마을에서 메주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한배 기자choi@kwangju.co.kr

장성지역 농협조합장 등 임원 3명 공금 횡령 고발

장성지역 농협조합장 등 임원 3명이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됐다.

8일 장성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농협 비상임감사 김모(63)씨가 이모(67) 조합장, 김모(53) 전무, 임모(여·49) 상무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8000만원을 빼돌렸다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 조합장과 김 전무는 지난 2016년 1월15일부터 12월12일까지 21회에 걸쳐 서울로 출장 간 것으로 비용 청구했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예산은 1박2일 40만원, 2박3일 50만원 등 획일적으로 청구하는 등 총 104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도 업무추진비는 사적으로 사용했고 교육지원사업비 등은 미리 결제를 하고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고 고발했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 같다. 하지만 공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하청업체로부터 3억여원 뇌물 받은 2순환도로 관리업체 전 대표 구속 기소

참여자치21, 철거 수사 촉구

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역대 뇌물을 받은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1구간 관리업체 전 대표 정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하청업체 실소유주 임모(51)씨는 배임중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11~2017년 순환도로 시설 관리 업무 도급 계약을 갱신하는 대가로 임씨로부터 차명 계좌로 3억1000만원을 수차례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임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고 사무실과 중대형 승용차 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임씨는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임씨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가

없는데도, 순환도로 시설 관리 하청 업체를 하며 정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검찰은 또한 1구간 통행요금 징수 업체로 선정 받기 위해 광주시 공무원에게 7200만원을 준 혐의로 임자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고 조사 중이다.

한편, 참여자치21은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고 막대한 형세가 투입되는 제2순환도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비리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참여자치21은 "그 동안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무면허 임자에게 시설 관리를 맡긴 점과 상남구조형성, 맥뿌리가 실제 이상으로 운영비를 받은 의혹이 수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지검, 금품 돌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기소

선물 받은 전남 대의원이 신고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박차훈(61)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회장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회원 111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추석·설 명절 전 5만원 상당의 그릇·과일 세트, 16만5000원 상당의 송이버섯 세트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대구·경북 대의원들에게 골프 회원권을 10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이용토록 한 혐의다. 투표권을 가진 새마을금고 대

의원은 총 351명으로 박 회장은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에게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명절에 앞서 의례적으로 선물을 건넬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박 회장이 다른 명절에는 대량으로 선물을 보낸 적이 없었고, 일부에선 차명으로 선물을 보낸 점 등을 이유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주지검에서 중앙단위 회장을 수사해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우편으로 선물세트를 받은 전남 지역의 한 대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함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회장은 앞서 2014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7표 차이로 낙선했으며 지난 2월 첫 비상임 회장에 당선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술마시던 상대 차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차량 3대 "팡"

○··운전면허증조차 없는 20대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일했던 업체사장의 차를 훔쳐타고 달아났다가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걸려.

○··8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A(여·21)씨는 이날 자정께 광주시 서구 차평동에서 안마방 사장 B(35)씨와 술을 마신 뒤 B씨의 K9 차량을 훔쳐 20m의 짧은 거리 운전 후 하천에 이면도로 위

에서 있던 보행자 C(29)씨를 사이드미러로 치고, 주변에 주차된 카렌스, 쏘렌토, 렉서스 등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날 면허취소(0.1%이상)수준을 훨씬 웃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다 문득 차량을 운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스마트폰을 훔쳐 운전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 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반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